

# 저를 보내십시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VOL. 231  
2025 | 여름



# 해외 선교 사제

9개 국가 | 24명



## 독일

신정훈 미카엘



## 일본



김태근 베드로

김윤복 모세

**김필중 세례자요한(10p)**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김성천 스테파노(22p)**



정해성 베드로

기호배 맛세오



## 스페인

손우성 미카엘



##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김경진 베드로

김재원 베드로샤넬

윤윤상 요셉

김대용 사도요한

## 목차

- 04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 06 선교, 복음화, 우리 모두에 맡겨진 사명
- 10 선교지 이야기 - 일본, 과테말라, 미국
- 26 선교지를 가다
- 30 손을 내밀어
- 34 후원자 명단
- 36 선교를 위한 기도
- 37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38 공지사항



## 미국(알래스카)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이준호 베드로** (18p)



##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 콜롬비아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 과테말라

정록수 헨리코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우석제 도미니코

**박형문 바오로** (14p)



##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

부활절 지난 월요일 아침,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퇴원하시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신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모습으로,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자.' '평화는 가능하며 희망을 갖자.' 부활절 아침  
 세상의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와 함께 당신이  
 사셨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복음의 정신을 세상 안에  
 실천할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부활절 Urbi et Orbi)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1코린 15,14)**



부활의 기쁜 시절을 막 마치고 연중 시기에 접어든  
 교회의 시간이지만, 이번 호에서 선교 사제들은 세계  
 곳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준비하며 기뻐하는  
 지를 전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다양한 신앙인  
 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의 신앙, 하나의 기쁨, 하나의  
 교회를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페루의 가난한 사람들 안에 살았던 선교사를 레오 14세라는 이름의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 선교의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놀라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첫 인사말을 기억합니다.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며 하신 말씀  
 '평화가 너희와 함께'를 떠올립니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도전 안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평화'의 인사와 함께 세상 안에서 이루어야 할 '인간됨'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고 비참한 현실을 함께 살아내는,  
 주님의 사명을 최전선에서 살고 있는 선교 사제들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어주길 기도합니다.**

김동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장



# 선교, 복음화, 우리 모두에 맡겨진 사명

유동철 리노 신부  
해외선교봉사국 차장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에 위임된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명(Redemptoris Missio)은 아직 완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던 구원의 기쁜 소식,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 안에 선포하는 사명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즉, 선교는 그리스도 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임무인 것입니다.

저는 해외선교봉사국의 차장으로 일하면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신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해외 선교 신부님들을 위해 후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시간에는 본당 혹은 다른 동기 신부님들의 부탁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본당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는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간병의 어려움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원목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을 함께해나가는 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경찰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는 신부님들과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세상 곳곳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충실히 살아가는 주님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저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종종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 교회 전체의 사명이며, 그래서 또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선교라고 하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오지에 살거나, 복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교나 선교 대신 '복음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복음화가 선교와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단순히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역시 복음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일상 안에서 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또한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즉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화'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신앙을 새롭게 이해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알리고 하느님과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선교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나부터 하느님을 찾고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 하느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고, 그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먼저 복음화되고, 그 삶을 통하여 복음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머무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커다란 희망 안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 하느님 나라를 전하며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일본

## 도쿄대교구



###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sup>2</sup>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79.2%, 불교 66.8%, 기독교1.5%, 기타 7.1%

성인 43명

복자 396명

수호 성 세레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2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 김필중 세레자요한 신부 | 일본 도쿄대교구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대교구의 니시치바 성당에서 보좌신부로 지내고 있는 김필중 세레자요한입니다. 저는 2022년 4월에 도쿄대교구로 파견되어 이곳에서 네 번째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당황했는데, 3년이 지나 성삼일 전례를 주례했다고 생각하니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 선교지 이야기



도쿄대교구의 신자들이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지내는 모습은 한국에 계신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공성사를 하시듯 이곳의 신자들도 다른 때보다 고해성사를 많이 청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오전과 저녁, 두 번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기쁨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 하기 위해 사순 시기를 열심히 보내고자 노력하는 자세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공통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활 미사에서 볼 수 있는 특징 한가지는, 제가 있었던 세키구치 성당과 니시치바 성당 모두 미사 중에 반드시 세례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례식은 1년에 한 번 부활 성야 미사 중에 하고요, 그렇기에 예비자 교리도 자연스럽게 1년 이상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늘 6개월간 예비자 교리를 하고 세례

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1년은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일본 신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예비자 교리를 들었음에도 본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2년, 3년 예비자로서 성당에 다닌 다음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은 베트남과 필리핀, 남미에서 온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의 부활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남미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이므로, 해외에서 생활 하면서도 성당에 열심히 다닐 정도라면 신앙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겠지요.

부활 미사가 끝나고 모두 음식을 준비해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특히 필리핀 신자들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필리핀 노래를 틀고 춤추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데, ‘열정’이라고 하면 남미도 지지 않지요. 남미 신자들도 함께 흥겹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은 믿음을 통해 하나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사실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평소에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하나의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미사를 예로 들면,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미사의 형식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세계 어느 곳의 미사를 가더라도 그곳의 언어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순서와 분위기를 통해 '지금 미사의 어느 부분이 거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기도에도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톨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의 하나이자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를 묶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세계청년대회의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 이콘의 일본 순례였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기념하는 WYD 십자가와 이콘의 순례가 4월 29일 후쿠오카교구에서 시작되어 오사카타카마츠대교구, 나고야교구를 거쳐 5월 11일 도쿄대교구에서 끝났습니다.

특히 5월 10일 도쿄대교구에서는 희년과 청년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강연으로 WYD십자가와 이콘의 의미를 묵상하고 도보 순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로 죄를 씻고 이어지는 미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모일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도쿄에 살고 있는 일본 청년들을 비롯하여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브라질, 포르투갈 등 세계 각지의 청년들이 무려 400명 이상 모여서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뻐하며 2027년에 다시 모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본 행사의 백미는 미사를 집전하신 안드레아 주교님의 일본어 강론을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 번역하여 모든 청년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은총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



##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면적	108,889km <sup>2</sup> (세계 105위, 한반도의 1/2)
인구	1,791만명 (세계 66위)
종교	가톨릭 47%, 개신교 40%, 기타
성인	1명
복자	15명
수호 성인	성 야고보(대)
관할 구역	대교구 2개, 교구 11개, 성직자치구 1개, 대목구 2개



### 박형문 바오로 신부 |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후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

과테말라에서 지내고 있는 박형문 바오로 신부입니다. 지난해 6월, 저는 과테말라 땅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1년 가까운 시간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순 시기와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이라는 신비를 새롭게 체험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글을



## 선교지 이야기



통해, 제가 이곳에서 느낀 점들을 조심스럽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Sacatepéquez(사카떼페케스)라는 곳이고, 부활절을 향한 행렬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는 그 안에 위치한 Antigua(안티구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이곳은, 사순 시기가 되면 마치 거대한 성전으로 변합니다. 도시 전체가 경건한 침묵, 그리고 신앙의 열기로 가득 찹니다.

성주간이 가까워질수록 거리에는 짙은 연기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자춧빛 복장을 한 남성들과 검은 복장의 여성들이 묵묵히 행렬을 이어갑니다. 나무로 만든 거대한 성상(聖像)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할 정도로 크고 무겁지만,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짊어지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행렬은 단지 보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직접 '몸으로' 따라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행렬에 참여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풀고타 언덕을 오르시던 그 길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다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에는 없는 신앙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는 성당 안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지만, 이곳 과테말라에서는 온 도시가 하나의 무대가 되어,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함께 걷고 함께 체험합니다. 그 길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합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행렬이 지나가는 길을 위해, 주민들이 며칠 전부터 함께 만드는 알폼브라(alfombra) 문화입니다. 알폼브라는 거리 바닥에 색색의 톱밥과 꽃잎, 과일 등으로 정성껏 꾸며 만든 길입니다. 행렬이 지나가면 그 아름다운 작품은 단 몇 초 만에 사라지지만, 그 잠깐을 위해 수많은 이들이 밤을 새워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 알몸브라는 주님께 드리는 정성 어린 봉헌이며, “예수님, 이 길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신앙의 표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화를 ‘함께 만드는 기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고해성사의 문화였습니다. 사순 시기가 되면, 이 지역의 모든 성당에 지역 내 모든 신부님이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고해성사를 집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목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진지한 준비입니다.

신자들은 가족 단위나 자신의 일터에서 일이 끝난 후 성당에 모여 차례를 기다리며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지 ‘죄를 씻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참된 기다림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저 역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나는 이 여정 안에서 신자들과 함께 걷고 있었는가?”



이곳에서의 체험을 통해, 저는 선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냈는가’에 달려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보다, 내가 보여주는 눈빛과 손길, 그리고 걸음이 더욱 깊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은 단지 성당 안에서의 기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자 ‘깨어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때로는 무너지고 지친 마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눈뜨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땅에서 이곳 사람들과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해주시는 모든 교우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은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

# 미국 앵커리지-주노대교구



## 알래스카(미국)

주(州)도 주노

면적 1,717,856km<sup>2</sup>

인구 710,249명

종교 개신교 37%, 가톨릭 16%,  
몰몬 5%, 동방정교회 5%,  
유대교 0.5%, 이슬람교 0.5%

성인 14명

복자 7명

수호 성인 무명 시대

관할 구역 미국 전체 기준 - 동방가톨릭관구 1개, 대교구 33개, 교구 160개, 군중교구 1개, 성직자치교구 (성공회) 1개



### 이준호 베드로 신부 | 미국 앵커리지-주노대교구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Juneau)에서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분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겨울 소식지 글을 쓴 이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보좌신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본당에 특수한 사정이 생겨 신부님들께서 출타하시면, 그 본당으로 파견 나가 지내게 됩니다. 올해만 해도 피터스버그, 랭글, 클로악, 앵커리지, 시트카를 다녀왔습니다.



# 선교지 이야기



알래스카 지역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남동 지역 (Southeast)에서 도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와 배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을 때에는 여섯 명 정원의 경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습니다.

## Part 1. 사순

알래스카 선교지에서 맞이하는 사순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작년 6월, 선교지에 도착해서 처음 맞이한 겨울은, 길고 어두운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눈과 비를 비롯해 날씨가 좋지 않아 햇빛을 볼 수 없는 날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해가 떠도 곧 어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길고 긴 어둠 속에서 추위를 인내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야 합니다. 폭설에 대비해 유통기한이 긴 캔과 상온 보관 식품도 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어둠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행기는 자주 연착되고, 오래된 사제관의 낡은 시설은 언제나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지난번 시트카에 갈 때에는 비행기가 아홉 번이나 연착되어 내내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당 근처에는 유명한 멘텐홀 빙하가 있지만, 여름이 되면 빙하가 녹아 교우분들이 사는 곳에 홍수를 비롯한 재난이 자주 발생 합니다. 인터넷 속도는 한국인의 인내심을 시험할 정도로 느리고, 아예 불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 공급도 일정하지 않아 미사 중에 정전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목자가 부족한 이곳은 한 신부님이 두 곳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성주간에도 미사를 거행할 수 없는 본당이 있기 때문에, 지난 성탄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피터스버그로 파견





왔습니다. 이곳은 몇 해 전 화재로 성당이 전소되어, 현재는 임시로 개신교 교회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아니기에 느끼는 불안정성과 매일 발생하는 작은 도전들이 가득한 불확실성은, 초조함과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 어둠 속에 작은 빛을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 Part 2. 부활

그렇게 길고 긴 어둠을 지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곳에도 울려 퍼집니다. 어둠이 깊고 깊을수록, 빛은 더 크게 확장됩니다. 어둠 속에 파묻혀 상황

에 압도되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늘 부족한 제 곁에서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어둠을 넘어서는 빛이신 분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소화 테레사 성녀께서 자서전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꽃이 장미라면 장미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잃게 되는 것처럼, 어둠과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찾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도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서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이기에 비록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어둠과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다 보면, 놀랍게도 내 곁에 계신 그분과 더욱 깊은 우정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알래스카에 따뜻한 햇볕이 떠오르는 날이면 어김없이 성호경을 그으며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어둠과 고통 속에 계신 분이시라면, 말씀과 성체를 통해 현존하시는 주님의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빛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 빛을 잘 간직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번 부활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첫 본당인 사도 바오로 성당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주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

## 후쿠오카교구



###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sup>2</sup>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79.2%,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7.1%

성인 43명

복자 396명

수호 성 세레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2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 김성천 스테파노 신부 | 일본 후쿠오카교구

찬미 예수님! 6개월 만에 다시금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년 4월 초 후쿠오카교구 내 인사이동으로 현재 '이즈카 성당'과 '타가와 성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임 후 이미 한해가 지났지만, 이전 본당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을 보내고 이동했기에 지금 본당에서 올해 처음 부활을 보내고 나서야 '새로운 본당에서 1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본당에서 맞이한 이번 파스카 성삼일은 개인적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두 본당이 규모는 작지만, 서로 별개의 본당이기에 같은 전례를 두 번씩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주일



## 선교지 이야기



미사를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번 파스카 성삼일 내내 두 본당을 오가며 전례를 맞이했고 파스카 성야 미사의 파스카 찬송도 두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스카 성야 미사는 이른 시간에 타가와 성당에서 봉헌했습니다. 신자분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함께 인사를 나누었는데,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서둘러 이즈카 성당으로 이동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는 이즈카 성당보다 나중에 있으니, 미사 후 축하 자리에 함께하기로 하며 다음 성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차 안에서 다시 한번 파스카 찬송의 일본어판을 들었습니다. 타가와 성당에서 파스카 찬송을 부르던 중 음을 잘못 잡아서 여러 번 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매년 파스카 찬송을 하면서도 매번 음이 입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차 안에서 속으로 ‘아직 파스카 찬송이 한번 더 남았구나!’ 하며 다음 성당으로 이동했는데, 역시나 이즈카 성당에서는 또 새로운 음의 파스카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비교해서 긴장하기보다 여유를 갖고 파스카 찬송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며 두 곳 모두 신자 수가 많지 않은 작은 본당인 데다가 생활한 지 1년이 넘어서인지 교우분들이 눈에 더 잘 들어왔습니다. 파스카 성야 미사 때에는 성당까지의 대중교통편이 안 좋거나, 야간 운전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사에 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주일 오전에 봉헌된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과 새로운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매년 날씨가 바뀌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알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누군가를 통해 성당 소식을 접했거나 혹은 본인이 찾아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미사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서로 달랐겠지만, 모두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분들이 앞으로도 미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기를 기도 드렸습니다.



한편, 지난 성탄에 이어 이번에도 두 분당 모두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중에 성인 세례식과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자 준비하던 분들과 면담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모두 세례를 받기까지의 과정 및 사연이 다양했는데, 특히 마음에 남는 감동적인 사연을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타가와 성당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50대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타가와 성당에 오신 것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제님은 가톨릭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당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가톨릭을 접할 기회가 여러 번 생겨 성당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타가와 성당의 신부님과 이메일 상담 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대해서는 신부님을 통해 배우며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세례까지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직업 때문이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점(占)을 봐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멀리서도 찾아오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당시 신부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셨기에, 가장으로서 그분의 선택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부님과의 교리 공부는 이어



갔고, 미사에는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시골이라 차가 없으면 성당에 다니기가 매우 불편한데도(기차역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데다, 열차를 놓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먼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다니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사이동으로 타가와 성당에 부임하게 되었고, 전임 신부님처럼 그분을 포함해 세례를 준비하던 다른 한 분과 함께 교리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두 분 모두 예비자 교리 및 미사에 열심히 나오셨고, 주일미사 후 성당 청소 및 모임에도 성실히 참석했습니다. 마침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주님 성탄 대축일이 되었을 때 다른 한 분은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분은 세례까지는 어려워 수료식과 비슷한 축하식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축하식을 해드린 후 시간이 흘러 올해 사순시기를 앞둔 어느 날,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제님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집 근처에 노인 요양 시설이 생겼는데 그곳에 취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와 음식 만드는 일을 하였고, 이후 잘 적응하며 현재는 어르신들 돌보시는 등 다른 일도 맡아 하고 계셨습니다. 더없이 기쁜 일은 그분이 이번 주님 부활 대축일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점

입니다. 저와 신자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었고, 하느님께서 형제님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형제님은 변함없이 성당에 성실히 다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며, 다른 신자분들과도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번 주님 부활 대축일은 특별히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을 통해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저희의 작은 공동체를 살피주시고, 새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뜻 안에서 이즈카타가와 본당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우종철 마태오

## 선교지를 가다

찬미 예수님!

저는 과테말라에서 선교 중인 우석제 도미니코 신부의 부친인 우종철 마태오라고 합니다. 올해 저는 아내와 함께 아들 신부님의 해외 선교지인 과테말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아들 신부님은 분명 서울대교구 사제인데, 사제생활 11년 동안 서울교구 지역 내에서 사목활동은 3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군종교구에서 5년 동안 군 사목을 했고, 이후 곧바로 과테말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해외 선교로 파견된 지 두 해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낯선 이국땅으로 보낸 부모의 마음은 항상 염려되었고 또한 아들 신부님의 삶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살펴본 끝에 저희의 방문이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지금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는 멕시코에 인접한 중남미의 작은 나라입니다. 아들 신부가 선교 중인 지역은 산티아고 데 과테말라대교구의 안티구아라는 지역 내 작은 동네이고, 본당의 이름은 성 베드로와 세례자 요한 (San Pedro y San Juan Bautista) 성당입니다. 처음 공항에서 선교지로 가는 도중, 차창 밖으로 처음 본 과테말라의 환경은 매우 열악해 보였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버스와 트럭에서 내뿜는 매연, 그리고 무질서한 오토바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 산에 있는 동네를 지나가는 동안 모든 상가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고, 낡아 보이는 민가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며 마음속에 왠지 모를 안타까움과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소위 중남미 나라라고 하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소문을 들어왔는데,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지 본당이 있는 안티구아라는 동네에 들어서자 오래된 고도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본당에 도착하여 함께 사목하고 계시는 신부님들과 정치, 경제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테말라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비로소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모된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선교사라면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지역이 안전한 곳이고 많은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본당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곳 신부님들께서는 본당인 산 페드로 성당과 산 가스팔 공소, 산타 카타리나 공소를 맡아 사목하고 계십니다. 주임 신부님은 이현규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시고, 저의 아들 신부님은 보좌 신부를 맡고 있습니다. 두 신부님은 서품 동기이면서 동시에 한 본당에서 주임사제와 보좌사제라는, 선교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관계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테말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박형문 바오로 신부님도 사제관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주변 성당의 성사를 도와주시는 신부님으로 활동하고 계셨고, 당시 정록수 헨리코 신부님은 볼리비아에서 스페인어 공부를 하는 중이셨습니다. 그렇게 낯선 타지에서 한국 사제들끼리 한 사제관에 모여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테말라는



한국과 다른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일 년 내내 우리나라의 봄과 같은 기후를 유지하여 온통 푸른색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분당 바로 앞에는 큰 활화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콩을 찌서 으갠 프리홀레스와 옥수수로 만든 토르티야를 주식으로 먹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분위기와 신심의 형태도 한국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직도 처음 미사를 드렸을 때 느낀 문화적 충격이 잊히지 않습니다. 신부님과 봉사자들이 성당 성문으로 입당을 할 때, 통로 한가운데에 커다란 동네 강아지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개를 물려나게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반대로 신부님과 봉사자들이 그 개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는 상상도 못 할 광경이었습니다.

과테말라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는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신앙에 대한 진지함과 마음으로 믿는 신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화의 인사 때, 어린이들이 제대 앞으로 나오면 신부님께서 손을 잡고 인사해 주시고, 신자들 모두가 서로 껴안으며 웃음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웃음이 가득한 미사 분위기를 보며, 늘 경직된 마음으로 참례해 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니 조금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 신부님이 최대한 또렷한 발음으로 스페인어 미사를 봉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신자들과 기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아직도 가장 큰 숙제가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신부님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가 참으로 매일 도전적인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미사 후에는 모든 신자분이 저희 부부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도밍고(아들 신부) 신부님의 부모님을 뵙고 싶었다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셨고, 아들 신부님을 이곳에 봉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부 어린이들은 먼저 다가와 저희를 꼭 안아 주었는데 순수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따뜻함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저희 부부의 걱정을 모두 녹여냈고, 주님께서 아들 신부님에게 좋은 몫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방문했던 시기는 사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신부가 말하길, 참 좋은 시기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 안티구아라는 동네는 성상과 행렬에 대한 강렬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순 시기 동안 매우 큰 성상 행렬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재의 수요일 미사 참례를 시작으로 사순 제1주일에 산타 카타리나 공소의 성상 경배(velacion)와 약 15시간 동안 진행되는 나자렛 예수님 성상 행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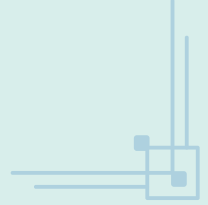
프로세시온(Procesion)은 예수님 상과 성모님 상을 모신 대형 가마를 신자들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성상

행렬입니다. 이 행사는 여러 본당의 에르만닷이라고 하는 성상 공경 단체들이 주관하며 매주 돌아가며 진행되는데, 미사 후 공소에서 출발하여 안티구아 시내까지 약 50개 구간으로 나누어 교대로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한 구간에 약 80여 명이 필요하며 총 4,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렬로 밤늦게까지 진행됩니다. 도로 바닥에는 행렬이 밟고 지나가도록 ‘알폼브라(alfombra)’라는 장식을 하는데 이는 염색한 톱밥과 꽃, 그리고 과일들로 꾸며져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한편으로 가마를 지는 이들의 표정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가마의 무게로 고통스럽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마를 지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누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거룩하고 은총이 가득한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과테말라의 사순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곳만의 특유하고 강렬한 전통적 문화와 신심 행위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함과 동시에, 엄숙한 보속에 대한 묵상을 자아내는 참으로 특별한 경험들로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방문을 통해서 아들 신부님에 대한 걱정과 노파심은 과테말라의 푸른 자연처럼 풍성한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곳 신자들에 대한 감사함이 여운으로 남아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또한, 은총이 가득한 사순 시기에 아들 신부님과 함께 선교지에서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중인 모든 신부님과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좋은 몫을 기쁘게 수행하시길 기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종철 마태오**




# 손을 내밀어



예쁘게 모은 손을 기도손이라 부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모습 또한 아름다운 기도손입니다.

사제들이 선교현장에서 만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 후원방법

손을 내밀어주실 후원자께서는 성함과 함께 '님시'를 넣어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님시\_홍길동)

- 입금자명에 '님시'가 명시된 후원금에 한해 '님시'에게 전달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필요 시, '세액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 후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Tel. 02) 727-2409 | E-mail. mission@seoul.catholic.kr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9-624437 | 예금주 :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에서 선교 중인 우석제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올해 초, 국장 신부님께서 선교 사제들에게 '손을 내밀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경제적·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가능한 한 도움의 손길을 전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님시(Nimsy)'입니다.

사실 '님시'는 제가 사목하는 본당 지역이 아닌,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의 산 안토니오 아구아스 칼리엔테스(San Antonio Aguas Calientes)라는 마을에 사는 소녀입니다. 저는 이 소녀를 저희 본당 공소 청년회가 자선 모금을 통해 돕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약 5년 전, 시에서 주관한 무료 치료 봉사 행사에서 처음 '님시'를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0살이었고, 이미 여섯 살 때부터 피부근염(dermatomyositis)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앓아왔습니다. 이 질환은 명확한 발병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심한 고통을 동반하며 완치가 매우 어려운 질병입니다. 피부, 근육, 심지어 장기까지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켜 매일같이 피부의 붓기와 극심한 가려움, 근육 기능 저하로 인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청년들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도,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청년들은 '님시'를 돕기 위해 꾸준히 모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년 중 두 명은 물리치료사인데, 지금까지 일주일에 두 차례씩 그녀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님시'를 위한 월간 모금액은 약 150개찰(약 3만 원) 정도인데, 그녀가 매달 지출해야 하는 약값은 약 3,500개찰(약 7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과테말라의 월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녀는 자가면역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매주 450개찰(약 9만 원) 상당의 주사를 맞아야 하며, 매일 강력한 스테로이드제, 위산 분비 억제제, 비타민B 및 엽산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제를 자주 발라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님시'의 가정형편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수년 전 가정을 떠나버렸고, 어머니 홀로 '님시'와 두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38세의 어머니는 학력도 낮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 전통복장을 만드는 작업장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 지역의 최저임금인 월 3,500개찰(약 70만 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님시'는 자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고, 자가면역질환의 고통을 온전히 견뎌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증상이 심해져 몸이 경직되어 침대에서만 지내는 날들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던 중학교(1학년)를 휴학해야만 했고, 결국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그녀를 재빨리 발견하여 큰 위기는 넘겼지만, '님시'는 여전히 그 고통과 싸우며 공부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휴양 중입니다. 아직 14살에 불과한 어린 소녀임에도 말입니다.

저는 이 사정을 듣고 청년들과 함께 그녀의 약을 사서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지 못해 얼굴이 부어 있는 '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반갑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고, 어린 여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외출하시더니, 구멍가게에서 급히 사 오신 생수를 저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귀한 생수를 마시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 어려움과 역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점점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는 절망이 아닌 확신이 묻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부모님들로부터 전달받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톨릭이 아닌 우리의 형제교회인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견뎌온 인간의 산물 인지, 그녀가 가진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모든 것을 건디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은 저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식당 벽에 직접 써놓은 말씀이 보였습니다. "나는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 (시편 118,17)

그들은 매우 작은 규모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곤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져 도와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형님인 가톨릭교회가 동생 교회를 도와줄 때가 됐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에큐메니컬(교회 일치적) 한 선교를 이루시나 보다!'

그리고 '님시'에게 꿈이 무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총기 있는 눈으로 변호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머니도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변호사가 돼서 본인들처럼 어려운 이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해결해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의 눈을 보니까, 넌 꼭 꿈을 이룰 것 같아. 다음엔 더 건강해져서 만나자! 약 말고도 맛있는 것도 사 올게!" 라고 말하며 그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제관에 돌아와서는 우리 해외선교봉사국의 "손을 내밀어" 프로젝트에 그녀의 이름을 꼭 올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근육 마비와 가려움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기도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소녀 '님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다면, '님시'는 붓기 없는 얼굴로 마음껏 웃고, 다시 학교에 다니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님시'의 집 벽에 적혀있던 시편 말씀처럼, 씩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청해봅니다. '님시'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 (시편 118, 17)

아멘.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 5월 납부일 기준

강덕금 | 강매리 | 강문주 | 강민정 | 강선경 | 강수희 | 강신득 | 강영자 | 강이순 | 강정애 | 강지현 | 강판헌 |  
 강풍자 | 강현주 | 강혜란 | 고경식 | 고영임 | 고영주 | 고윤숙 | 고은실 | 고의영 | 고정원 | 고혜숙 | 광도경 |  
 광상원 | 광희경 | 구가은 | 구경모 | 구모석 | 구민영 | 구민희 | 구승모 | 구연모 | 구자순 | 구주현 | 권민정 |  
 권성혁 | 권오영 | 권익란 | 권자영 | 권해경 | 권효정 | 김강서 | 김경란 | 김경희 | 김공례 | 김광자 | 김국희 |  
 김규엽 | 김규태 | 김기용 | 김길옥 | 김나은 | 김난옥 | 김남균 | 김다영 | 김덕수 | 김덕영 | 김도연 | 김동분 |  
 김동현 | 김란숙 | 김명애 | 김명옥 | 김명춘 | 김명희 | 김묘식 | 김미숙 | 김미자 | 김미재 | 김미화 | 김민성 |  
 김민옥 | 김병국 | 김봉조 | 김상덕 | 김상욱 | 김서전 | 김선영 | 김선태 | 김선화 | 김선희 | 김성년 | 김성희 |  
 김세령 | 김세인 | 김수정 | 김수지 | 김수진 | 김수현 | 김수희 | 김숙자 | 김숙희 | 김순금 | 김순자 | 김순희 |  
 김승규 | 김승희 | 김시훈 | 김신순 | 김애생 | 김애정 | 김양자 | 김연수 | 김영미 | 김영신 | 김영애 | 김영운 |  
 김영희 | 김옥심 | 김옥제 | 김완식 | 김용기 | 김용혜 | 김우경 | 김우찬 | 김원선 | 김원임 | 김원중 | 김월순 |  
 김유경 | 김유빈 | 김은자 | 김인수 | 김자원 | 김장묵 | 김재동 | 김점순 | 김정란 | 김정부 | 김정숙 | 김정애 |  
 김정오 | 김정호 | 김정희 | 김종철 | 김종필 | 김주영 | 김주현 | 김지경 | 김지민 | 김진선 | 김진영 | 김진희 |  
 김찬순 | 김창민 | 김채영 | 김채희 | 김청자 | 김춘숙 | 김충희 | 김태순 | 김태윤 | 김현상 | 김현숙 | 김현정 |  
 김현준 | 김혜숙 | 김화준 | 김효철 | 김희선 | 김희정 | 나범수 | 나석연 | 나정예 | 남승관 | 남승민 | 남 정 |  
 남정희 | 남하현 | 노명숙 | 노승경 | 노승주 | 노혜영 | 류정란 | 맹미숙 | 문월순 | 문준철 | 문태주 | 민은원 |  
 민은하 | 민정묘 | 민추자 | 민흥기 | 박 결 | 박경숙 | 박경진 | 박경희 | 박고운 | 박금순 | 박기식 | 박다운 |  
 박동수 | 박명숙 | 박미자 | 박민희 | 박병선 | 박설진 | 박성규 | 박성분 | 박세진 | 박수진 | 박승보 | 박연수 |  
 박영숙 | 박영신 | 박옥희 | 박유나 | 박윤경 | 박은덕 | 박은주 | 박은진 | 박은호 | 박정남 | 박정숙 | 박종숙 |  
 박주영 | 박준규 | 박지영 | 박지현 | 박진수 | 박진은 | 박진희 | 박창섭 | 박태련 | 박태안 | 박혜숙 | 박효숙 |  
 박효진 | 반세록 | 반희진 | 방수희 | 방애자 | 방인순 | 배건우 | 배귀선 | 배근아 | 배수정 | 배연주 | 배영민 |  
 배현열 | 백경서 | 백기인 | 백명옥 | 백삼열 | 백선혜 | 백순복 | 백승자 | 백영숙 | 백용남 | 백은숙 | 백일순 |  
 변광국 | 변신호 | 변효정 | 사춘숙 | 서수용 | 서숙자 | 서순자 | 서안나 | 서영숙 | 서영순 | 서영진 | 서용재 |  
 서유진 | 서주영 | 서지영 | 서진곤 | 서호숙 | 석정미 | 성경희 | 성락숙 | 성수진 | 성윤석 | 성정민 | 소정윤 |  
 손명숙 | 손봉희 | 손태호 | 손효영 | 송공섭 | 송금선 | 송민석 | 송민우 | 송영남 | 송이종 | 송재일 | 송진아 |  
 송혜원 | 신경애 | 신미경 | 신상자 | 신선미 | 신선희 | 신수경 | 신수점 | 신양선 | 신윤숙 | 신재승 | 신정삼 |  
 신정환 | 신종훈 | 신 현 | 신현화 | 신혜옥 | 심근자 | 심영란 | 안경숙 | 안다영 | 안명순 | 안문숙 | 안성준 |  
 안숙영 | 안영춘 | 안종임 | 안형숙 | 안호현 | 안효일 | 양길자 | 양대동 | 양도경 | 양병숙 | 양선자 | 양성훈 |  
 양정훈 | 엄인영 | 엄주영 | 엄지원 | 연연흠 | 연정숙 | 연제현 | 연현철 | 오광호 | 오귀애 | 오미희 | 오상묵 |



오세성 | 오영선 | 오옥남 | 오원경 | 오윤정 | 오인환 | 오정석 | 오정훈 | 오종숙 | 오종훈 | 오지철 | 오철환 |  
 오춘매 | 오춘숙 | 오현정 | 오호택 | 오희수 | 오희숙 | 옥다슬 | 왕은순 | 우종철 | 원경식 | 원영연 | 원인영 |  
 유경자 | 유승연 | 유윤식 | 유인숙 | 유지민 | 유찬희 | 유한주 | 육소인 | 윤경애 | 윤도희 | 윤동노 | 윤선화 |  
 윤세현 | 윤소영 | 윤은희 | 윤인선 | 윤지숙 | 윤필용 | 윤현옥 | 윤홍자 | 윤호석 | 이강석 | 이강울 | 이경애 |  
 이경여 | 이경옥 | 이경혜 | 이경환 | 이규원 | 이금숙 | 이길자 | 이나은 | 이동근 | 이두식 | 이만수 | 이명재 |  
 이민재 | 이병열 | 이병주 | 이보차 | 이복금 | 이복동 | 이복순 | 이상구 | 이상금 | 이상엽 | 이선민 | 이성범 |  
 이성희 | 이숙경 | 이숙노 | 이순금 | 이순명 | 이순이 | 이순자 | 이승용 | 이연수 | 이연향 | 이영순 | 이영임 |  
 이영희 | 이예숙 | 이옥란 | 이옥희 | 이완수 | 이용승 | 이용희 | 이우령 | 이운천 | 이원미 | 이월희 | 이유진 |  
 이은경 | 이은희 | 이인숙 | 이인순 | 이인자 | 이재원 | 이재준 | 이재환 | 이재희 | 이정민 | 이정연 | 이정옥 |  
 이정원 | 이정희 | 이종월 | 이종임 | 이준협 | 이준화 | 이지옥 | 이지현 | 이지훈 | 이창경 | 이창엽 | 이채미 |  
 이철항 | 이춘자 | 이태숙 | 이현경 | 이현아 | 이현애 | 이형자 | 이혜영 | 이 호 | 이홍재 | 이희나 | 이희숙 |  
 임경애 | 임교선 | 임대흥 | 임목상 | 임미자 | 임미정 | 임병남 | 임복덕 | 임수주 | 임용숙 | 임주연 | 임채정 |  
 임현준 | 임현진 | 임혜자 | 장명훈 | 장복자 | 장순자 | 장용근 | 장윤희 | 장은주 | 장재진 | 장정례 | 장정순 |  
 장진희 | 장착한 | 장춘자 | 장효숙 | 전경복 | 전미순 | 전병주 | 전성실 | 전옥순 | 전용민 | 전은경 | 전휘성 |  
 정경화 | 정동욱 | 정병희 | 정상은 | 정상인 | 정선경 | 정선화 | 정소영 | 정순이 | 정완심 | 정윤희 | 정재순 |  
 정재현 | 정지혜 | 정진규 | 정찬훈 | 정철운 | 정태양 | 정평화 | 정현엽 | 정홍경 | 정호남 | 정훈채 | 정희자 |  
 조경자 | 조나라 | 조남옥 | 조도연 | 조문경 | 조봉숙 | 조성자 | 조우진 | 조원주 | 조주연 | 조현수 | 조혜진 |  
 조희문 | 주경희 | 주선미 | 지정순 | 지창순 | 지 형 | 진갑연 | 진창환 | 차명훈 | 차영미 | 차지영 | 채상경 |  
 채종서 | 채행찬 | 채희정 | 천유진 | 최강효 | 최경희 | 최길분 | 최명근 | 최문성 | 최보성 | 최선명 | 최성지 |  
 최성진 | 최세화 | 최소중 | 최승한 | 최영옥 | 최영호 | 최옥경 | 최옥란 | 최 용 | 최운근 | 최원정 | 최윤보 |  
 최정윤 | 최정은 | 최정자 | 최제원 | 최준일 | 최지영 | 최진이 | 최한기 | 최현주 | 최형기 | 최호순 | 최희중 |  
 추명진 | 탁기형 | 탁정환 | 태연순 | 태원안 | 태철민 | 하명자 | 하복례 | 하봉자 | 하정순 | 하지윤 | 한미정 |  
 한승지 | 한영미 | 한윤예 | 한은비 | 한정우 | 한화수 | 함재정 | 허 경 | 허미란 | 허미래 | 허영진 | 현문섭 |  
 현성순 | 현정애 | 현혜서 | 홍권실 | 홍눈솔 | 홍석준 | 홍성숙 | 홍순옥 | 홍승예 | 홍영덕 | 홍인자 | 홍재모 |  
 홍정자 | 홍주희 | 홍청자 | 홍필선 | 황경혜 | 황규영 | 황영옥 | 황은희 | 황정록 | 황정숙 | 황지선 | 황춘익 |  
 박마리아 | 성힘찬이 | 돈암동성당 | 킹스쿨학원 | 이행자 | 임정옥 | 명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 Fr.구본석 |  
 Fr.김연범 | Fr.김원철 | Fr.박규흠 | Fr.박민재 | Fr.박우준 | Fr.우요한 | Fr.이병철 | Fr.임상무 | Fr.한성호 |  
 익 명

##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 루카 9,60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9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4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_ 02) 727-2407, 2409 | 후원 미사 \_ 매월 첫 목요일,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홈페이지 \_ <http://mission.catholic.or.kr>

##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후원계좌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

예금주 \_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후원 방법

### (1, 2 중 택일)

### 1.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 2.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후원 신청 QR



## 매월 첫 목요일 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7월 3일(목) 오후 2시
장소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집전	오병웅 베드로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협력사제)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일시	8월 7일(목) 오후 2시
장소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집전	김동원 베드로 국장신부 유동철 리노 차장신부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 공지사항



###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_ 09:00~18:00

점심시간 \_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 해외 선교 후원 계좌

예금주 |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우리은행 454-035571-13-101	신한은행 140-009-624437	국민은행 375-01-0091-080	농협은행 386-17-002881
---------------------------	------------------------	-------------------------	-----------------------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27-2409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 가능

구분	날짜	시간	장소
해외 선교 희망 사제 모임	9월 15일	오후 5시	교구청 본관 3층 3회의실
	12월 8일		